

선거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후보자명	이병석	기호		소속정당명	새누리당
공약번호: 1	공약 제목 : KTX 포항직결 노선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KTX 포항직결 노선은 기존의 경부고속철도 노선인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서 갈라져 울산~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 철도와 연결하는 총 연장 7.235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오는 201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li><li>● 총 사업비는 1,734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건설됩니다. 2011년까지 3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2012년에는 33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향후 1,0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li><li>● KTX 직결 노선이 개통되면 포항은 목포, 부산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의 KTX중착도시가 되어 명실상부한 KTX경제권 도시로 부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이 소요되는 반나절 권역으로 들어서게 됨으로써, 유동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해 집니다. 중국적으로는 우리 포항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li><li>● 이를 통해 포항은 환동해권 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과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경북을 넘어 동해안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li><li>● KTX 직결노선의 개통과 연동하여 도심지역으로의 이용객의 이동편리성과 신속성, 그리고 정시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계교통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다각도로 사업계획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li></ul>					
공약번호: 2	공약 제목 : 청년스타 만들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고용 감소로 청년 취업난과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8년 56.4%에서 2010년 54.2%로 감소했으나, 실업률은 3.2%(2008년)에서 3.7%(2010년)로 0.5% 증가하였습니다. 포항의 실업률 역시 지난 2008년 2.3%에서 2010년 2.9%로 0.6% 증가 하였으며, 취업자 수도 점점 감소(2008년 35.4천명→ 2010년 28.3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2006년 7.1%에서 2011년 7.3%로 증가하고, 포항의 경우 청년취업자 수는 2008년 약 35만 명에서 2010년 약 28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li><li>●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스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동 프로젝트는 연간 2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li></ul>					

포항을 이끌 리더그룹으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고졸 및 대졸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창업멘토링을 통한 창업기회 확대, 기업인턴십을 통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등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세부프로그램으로는 우선 청년 스타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며,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보완적 교육 및 구인구직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5천만원(추계)입니다. 다음은 청년 스타 메이커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언어, 과학,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해 지원·육성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멘토링서비스도 지원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연간 1억원(추계)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목표로 하며, 참여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5천만원(추계)입니다. 그 외 방과 후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 동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지역사회의 공동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 등 나눔 문화 형성기반을 마련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우수인력을 수용하고 역외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를 통한 포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공약번호: 3

공약 제목 : 광장 더+ 구성

- 현안문제에 대한 기존의 대응시스템은 문제를 단순화하고 하나의 잣대를 적용해 해결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여러 시각과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부족했고, 시대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른 소통부재 현상이 대두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워 사회통합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왔습니다.
- 지금 우리사회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인식과 해결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과 각 세대의 꿈과 희망을 담은 공간을 통해 생생한 그들의 소리를 담아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광장 더+’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맞춤형 Solution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와 희망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공간입니다. Solution 그룹을 통해 현재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국회의원, 시·도의원, 포항시, 시민, 기업, 전문가, 사회단체, 학생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여, 지역 현안과 각종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생산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장중심의 활동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 광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업무전담기구의 구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기구는 광장의 업무관리 및 지역현안의 발굴과 여론수렴, 다양한 포럼활동, 청년스타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국비(지역상생발전기금, 금년 총예산 3,300억원중 일부 지원)를 활용하고 지방비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적으로는 시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시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광장을 통해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형성하고,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치적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대의민주주의 확장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인식의 전환과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약번호: 4

공약 제목 : 구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

- 구도심은 포항 발전의 상징이자 역사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포항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외연이 점차 확대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포항의 중앙동·죽도동·두호동 일대 구도심지역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75,809명에서 2012년 68,247명으로 9%(6,842명)정도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 도심 공동화 현상이 장기화 되면 효율적인 도심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심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게 됩니다. 또 도심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와 편의시설 부족에 따라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재산가치의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 과거 산업혁명의 대표도시였던 영국의 셰필드市는 인구 50만 수준의 철강도시였습니다. 하지만 70~80년대 철강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침체의 늪을 걷다가 도시 재구조화로 문화산업의 중추도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 포항의 도심도 영국의 셰필드市 처럼 문화의 생산과 향유가 혼합된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구도심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지금 포항은 불빛축제와 바다연극제를 개최하고 있고, 그 외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유치하였고, 추가로 ‘로보틱아트 페스티벌’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축제로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대안을 마련하여 문화산업의 중추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014년 KTX 직결선 개통에 연동하여 KTX 포항 신역사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인 ‘무가선 트램’의 건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포함한 이용객의 이동성과 편리성, 그리고 안정성과 정시성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도심부로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유동인구의 증가 등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약번호: 5

공약 제목 :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산업 기반 조성

-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新안보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세계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무대는 과거 유럽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자원강국 러시아, 거대한 중국, 기술과 자본의 일본 간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은 에너지자원 시스템 및 산업기반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집니다.
- 우리 포항도 미국의 피츠버그가 그러했듯이 철강중심 도시에서 'Post POSCO'시대에 대비해 첨단산업과 지식기반산업에 적극 투자해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 이에 정부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혁신 클러스터’(총예산 2,480억원, 정부추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기술연구소, 벤처기업단지, 인력양성센터, 부품·소재공단,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포항이 동해안 에너지산업의 구심점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또 영일신항만 배후단지 일원에 ‘첨단 수중 시공로봇 연구개발 단지’를 건설하겠습니다. 다목적 수중 지능로봇, 핵심원천기술 등을 연구·개발해, 포항이 국내 최대의 해양건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성 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경 예타신청 및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600억원(정부추계)입니다.
- 아울러 국내 최초의 수소연료전지공장과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을 연계한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의 R&D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연료전지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